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14-15 절의 말씀을 살펴 보시면 몇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14 절 말씀을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히 밝힙니다. 그리고 15 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밝히고 최종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적 결론이란 늘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소유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안에 존재한 ‘하나님의 복음’ 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전파 했다’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전파' 의 사명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현실적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전파’ 라고 말씀 했을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과 내가 평상시에 옆에 사람하고 말하는 것 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는 ‘Proclaim’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게르손’ 입니다. 이 ‘게르손’ 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파’ 라는 '게르손' 이란 말의 뜻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활동적인 상태에서 말하는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8:4-5 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같은 뜻의 단어인 ‘게르손’ 이 사용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테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스테반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 났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는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핍박과 박해때문에 떠나서 흩어 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점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받아 들이기 쉽지않은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행전 8:4-5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전파’ 라는 단어가 바로 ‘게르손’ 인데, 이것은 매우 활동적인 상태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 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침체 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일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말을했다’ 라고 하는 것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 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파’ 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시점에서 현실적 교회가 무엇을 잃어 버렸는지 살펴봅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다고 말씀했습니까? ‘두루다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활동적인 표현입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만하는 아주 소극적인 활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전파' 는 아주 강력한 행동이 수반됩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 하고 라는 말씀과 스테반이 죽은 후에 교회에 닥쳐온 핍박과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 했다는 말씀은 오늘날 현실적 교회에서 잃어 버린 성경이 말씀하는 ‘전파’ 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 버린겁니다.

전파에 관한 마태복음 4:23 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게르손', 즉 전파 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는 '두루다니며' 라는 적극적 활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활동적으로 전파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4-15 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주장하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 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소극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 줍니다.

오늘날에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전파'는 중단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성경이 그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상실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적극적 활동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려는 활동성이란? 교회내에서의 봉사적 의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때 드림을 치고 안치고, 넥타이를 벗고, 양복정장을 벗어 던지고,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아주 분주하게 부엌을 들락 날락하는 하는 활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말씀하려는 적극 적 활동은 그런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때 교회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 변화와 내부적 활동으로만 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하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외부적 활동을 뜻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서만옥스 한인교회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조명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안에서 내부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부적 활동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것, 다시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부터 전파 하셨다는 말씀은 이시대에 교회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지역사회를 행한 ‘전파’ 의사명을 다시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32-35 절의 말씀을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 복음에 대한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후에는 복음에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충성껏 섬겼습니다.

32 절 말씀은 ‘그때에’ 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때란 31 절 말씀에 기록된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 지던 때’ 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때입니다.

그런때에 베드가 사도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32 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 년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 라는 사람을 고쳐 줍니다.

이런 병고침의 사건들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것으로 복음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항상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사무엘목사 첫 예배 설교 내용중에서]

<저작권은 서만옥스 한인교회 Copyright 무단복제 배부 금합니다>